

環境問題와 環境保存論

李 相 敦

(中央大法大助教授·法博)

2. 環境 問題의 原因

우리는 앞에서 環境問題의 現況을 概觀하였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環境問題가 대두하게 된 原因은 어디에 있는가? 人口의 增加인가? 人間의 지나친 豊饒에의 欲求인가? 誤導된 技術의 進歩인가? 이러한 문제는 분명 法學의 問題는 아니다. 그러나, 法律의 가장 중요한 目的의 하나는 社會的인 目標을 달성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法을 제정하고 해석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社會的인 目標과 價値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環境法律家(environmental lawyers)나 環境法學徒(environmental law students)들은 生態界에 관한 科學의 概念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다소 哲學的인 論題에 대하여 친숙할 것이 필요하다.

무엇이 오늘날과 같은 環境問題를 초래하였나에 대하여 權威的인 正答을 구하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어리석은 것이다. 여하튼,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발표된 다음과 같은 각기 다른 見解를 개관함으로써 나름대로의 判斷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技術(Technology)

Barry Commoner 는 「The Closing Circle」(19기)이란 著書에서 技術의 진보야말로 오늘날 環境의 惡化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Commoner 에 의하면 第2次 世界大戰이야말로 人類 歷史에 있어서 分岐點이 되었다. 軍事

的 需要에 의하여 새로운 科學的 知識이 새로운 技術로 變化되었으며 終戰後에는 民間部分에 이러한 技術의 革命(technological revolution)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第2次 世界大戰 이후의 美國에서의 財貨의 증가는 대체로 人口의 증가와 비례하였지만 그 財貨의 種類와 質은 크게 변하였다. 즉, 合成洗濟(synthetic detergent), 化學纖維(synthetic fibers), 플라스틱, 알루미늄이 과거의 天然製品을 代替하였고, 自動車가 주된 交通수단으로 등장하여 鐵道를 대체하였고, DDT와 除草劑가 農業에 사용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人口의 成長, 또는 財貨의 增加 보다는 技術의 開發이 오늘날 環境問題를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Commoner 의 主張은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Commoner 의 假說은 貧困에 시달리는 未開發國에도 타당한가? 食糧不足과 疾病에 시달리는 未開發國에 있어서 技術 革新은 유일한 돌파구가 아닌가?

둘째, 오늘날의 環境汚染은 역시 더욱 발전된 優秀한 技術(superior technology)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지 않은가? 自動車의 엔진의 개량과 低硫黃燃料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여하튼, Commoner 의 주장은 우리가 새로운 技術을 開發할 때 그것이 環境에 미치는 影響

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른바 “technology assessment”)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技術이 미칠 수 있는 影響을 미리 測定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또한 安全한 것으로 보이는 技術도 널리 보급되면 예측할 수 없었던 副作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2) 成長(Growth)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의 위촉으로 D.Meadows 등이 작성·공표한 「The Limit to Growth」는 人口와 個人的 資源消費量은 增加하지만 地球의 資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環境은 날로 惡化되고 人類은 危機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의 결론은 人口의 증가를 제한하는 것을 위시하여 成長을 制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成長制限論은 많은 支持를 얻고 있지만 [M.Mesariovic & E.Pestel, Mankind at Turning Point (1974)], 批判論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W. Beckerman, Two Cheers for the Affluent Society (1974)] 批判論은 일반적으로 技術의 樂觀論(technological optimism)이라 불리워 질 수 있다. 즉 未來의 技術의 進歩를 로마클럽의 報告書는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成長이 오늘날 環境問題의 주요 原因이라는 입장에서 B.Commoner를 비판한 P. Ehrlich와 J.Holdren의 所論을 보면 다음과 같다. [P.Ehrlich & J.Holdren Review of Commoner, The Closing Circle, 14 Environment, No. 3 (1972)]

Ehrlich-Holdren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진행되어 온 Tigris와 Euphrates의 계곡의 沙漠化와 현재 Sahara沙漠의 擴張은 모두 人口의 증가와 이로 인한 土地의 過用에서 비롯된 것이며, Ireland의 유명한 감자 饑饉은 單一品種栽培(monoculture)가 빚은 生態의 災殃이었다. 지금도 人間은 이러한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奇蹟의 品種이라는 新種 多收穫品種의 開發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品種을 널리 재배하는 것은 生態界를 單純

히시켜서 環境의 慘事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것은 결코 잘못된 技術(fault technology)이 가져온 결과라고만 할 수 없다. 人口의 증가와 個人的 보다 많은 富에의 欲求가 빚어낸 所致인 것이다. 특히, 人口爆發을 안고 있는 未開發國家가 物質的 豊饒를 추구하기 위하여 産業化를 서두르는 경우에는 環境의 惡化는 더욱 深化될 수 있다. 따라서, 人口의 증가를 통제하고 開發을 抑制하는 것이야말로 環境問題에 대한 解答이라는 것이다.

(3) 經濟的 動機(Economic Incentives)

人間은 저마다 자기의 利益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利己的 行動은 그 자신을 포함한 共同體를 파괴할 수도 있다. 따라서 自由는 제약되어야 하고, 그 대신 組織에 의한 規制(institutional arrangement)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主張은 1968년에 발표되어 많은 주목을 모은 Garrett Hardin의 「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잘 나타나 있다.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162 Science 1243 (1968)]

Hardin의 “Commons”는 모든 牧者(herdman)에게 개방된 草原(pasture)이었다. 모든 牧者들은 가능한 많은 소(牛)를 “Commons”에서 기르려 했다. 그러나 과거 수백년 동안 部族간의 戰爭, 가뭄 그리고 疾病이 “Commons”에 생활하는 人間과 짐승의 數를 제한시켰기 때문에 이 草原은 이들 人間과 짐승을 모두 지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希求하였던 社會的 安定이 Commons에 찾아 들었다. 따라서 戰爭과 疾病은 더 이상 Commons의 主人公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牧者들은 자기 그들의 所得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牧者들은 자기 그들의 家畜의 수를 증가시키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Commons의 悲劇의 시초였다. 制限된 世界에서 그들은 限界를 모르고 家畜을 증진시켰기 때문에 草原은 벌거벗게 되었고 家畜은 굶어 죽게 되었고 牧者도 같은 운명이었다. Commons에서의 自由는 모두에 破滅을 가져 오기 마련이다.

(Freedom in a commons brings ruin to all)

이 같은 “Commons”의 悲劇은 環境汚染(Pollution)의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이번에는 “Commons”에서 무엇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Commons”에 무엇을 내다 버리기 때문이다. 生活下水, 化學·放射能·熱廢棄物을 江에 버리고 毒性의 연기를 大氣中에 내뿜는 것은 “Commons”의 構成員 個人에게는 이를 淨化시켜 버리는 것 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그러나, 制限된 시스템 속에서 各自가 독립적이며 합리적이고 自由經濟主義者로 행동한다면 결국 그 시스템을 파괴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Hardin은 이러한 “Commons”의 문제는 技術로서는 해결될 수 없고 단지 法的 및 組織的 規制(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을 통하여서만 解決可能하다고 하였다.

(4) 政治(Politics)

Garrett Hardin은 制限된 資源의 관리는 法과 組織에 의하여 規制되어야 하고 個人의 自由에 맡겨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그러면, 과연 法的 規制는 그 目的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William Ophuls는 1977년에 발간된 그의 著書, 「Ecology and the Politics of Scar-

city」에서 資源의 부족이야말로 紛爭과 環境變化의 原因인데, 특히 政治機構는 이에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環境保全과 資源管理를 위하여 眞정으로 필요한 法律은 議會를 통과하기가 힘들는데, 이는 議員들이 강력한 로비의 힘을 갖고 있는 業界의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政治(Politics) 때문에 環境問題는 改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Ophuls의 입장에서 본다면 Hardin의 “規制論”은 지나치게 樂觀의 일수 있다. Ophuls가 주로 非難한 것은 政治的인 府, 즉 議會와 大統領이었다. 法院이 環境問題에서 어떠한 役割을 담당할 것인가는 環境法에 있어 및 가장 중요한 爭點이다. 따라서, Ophuls의 주장은 法院이 보다 積極的인 役割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가? 여하튼, Ophuls는 法的·政治的 規制가 바람직한 결과를 손쉽게 이룩할 수는 없음을 지적하였다.

政治的 後進國에 있어서 環境惡化의 가장 큰 原因의 하나는 無能하고 腐敗한 政治이다. 環境汚染을 수반하는 産業體를 輸入하는 開發途上國의 政策決定者들은 종종 그것의 輸出國의 企業家에 의하여 매수되었음을 우리는 듣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의식개혁 9대실천요강

정직 모든 생활은 정직에 원칙을 두고 새시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불신풍조를 과감히 추방한다.

질서 모든 생활의 기초를 질서에 두고 이를 체질화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최대한 경주한다.

창조 왜곡된 미풍양속의 본질을 되찾아 민족정기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책임 모든 공직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무사안일등 고질적인 폐습에서 탈피, 스스로를 철저히 책임지는 풍토를 확립한다.

본분 각자가 자기본분에 충실하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분수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각종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를 정립한다.

주인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부정·비리와 무질서에 대한 건전한 고발정신을 함양한다.

국민화합 지나친 이기주의와 뿌리깊은 파벌, 연고의식을 철저히 불식함으로써 국민화합의 기반을 확충한다.

가정교육 모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